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14째주 (4월 4일)

정교회 주보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

사순절 제 3주일 / 십자가 경배주일

성 게오르기오스, 테오나스 수사

- 조과에서 ‘찬양되시는 주여’는 부르지 않는다.
- 대영광송 후 ‘십자가 경배주일 의식’을 거행한다.

제 2조, 조과복음 10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 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삼성송 대신 ‘주여, 주의 십자가에’ / 203, B292
- 사도경 : 히브리 4:40~5:6 / 230, 봉독서 451
- 복음경 : 마르코 8:34~9:1 / 139, B 96
-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

에브프시히오스 성인은 배교자 율리아노스 시대에 살았습니다.(4세기) 성인은 순결한 삶을 살다가 결혼하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율리아노스는 카파도키아의 케사리아에 이교도들이 매일 과시하며 숭배하기 위해 행운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성인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같은 마음을 가진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율리아노스가 특별히 사랑했던 행운의 여신의 신전

을 파괴하였습니다. 성인은 운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였습니다. 성인은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고문과 추방을 선고 받았고, 주동자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인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오10:39)라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은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초원과 즐거움의 낙원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성서를 낙원에 비유합니다. 그는 에덴의 낙원과 성서의 낙원을 비교하면서 성서의 낙원이 에덴의 낙원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낙원은 하느님에 의해 지상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혼에 심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낙원을 에덴 동쪽에 넣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 두지 않으셨고, 지상의 모든 곳, 세상 너머로도 펼치셨습니다. 예언자의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시편19:4)라는 말을 듣고 성서를 전 세계 모든 곳에 전파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말을 듣고 에덴의 낙원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도 성서의 낙원에서 벗어나서 있거나, 전혀 성서의 낙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조언이나 의견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시원한 샘의 원천을 무시하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성서의 사용에 대해”라는 훌륭한 설교말씀에서 결론은, 성서의 가르침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안전과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낙원에 머물시다. 근원에 가까이 머물면서, 낙원을 잃은 아담처럼 되지 맙시다. 말

도 안 되는 사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맙시다. 성서의 낙원 안에 머물시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크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서를 배우시다. 왜냐하면 샘 근처에 앉아 시원한 기운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폭염이 다가와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 계속해서 얼굴에 물을 적시면서 물로 해결하고, 심한 갈증의 욕구가 생길 때 샘으로부터 쉽게 치료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서의 근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은 비합리적인 욕망의 불꽃이 그를 괴롭혀도 바로 샘의 물로 쉽게 그의 영혼을 씻으면서 그 불꽃을 쫓아 버립니다. 또는 다시 불 위의 가마솥처럼 마음을 끓어오르게 하는 강한 분노가 괴롭힐 때 이 샘물의 물을 조금 적신다면 바로 즉시 파멸치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속의 불꽃들처럼 모든 나쁜 생각들을 성서를 읽음으로써 잡아내고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회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한 신이시며 인간이신 분의 완전한 계명이 뿌리 내릴 때에만 사회가 더욱 인간적으로 될 것이며, 사람들이 성서 말씀에 대해 연인, 학자, 청취자, 시인, 전달자가 될 때, 세상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말씀에 따르는 “영적 초원과 즐거움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지혜로운 인용구들...



많은 사람이 독서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책 읽는 것을 통해서 저는 문학과 신학의 대가들, 성인들, 정치인, 대통령, 음악가, 평민 등으로부터 귀중한 보물 같은 인용구들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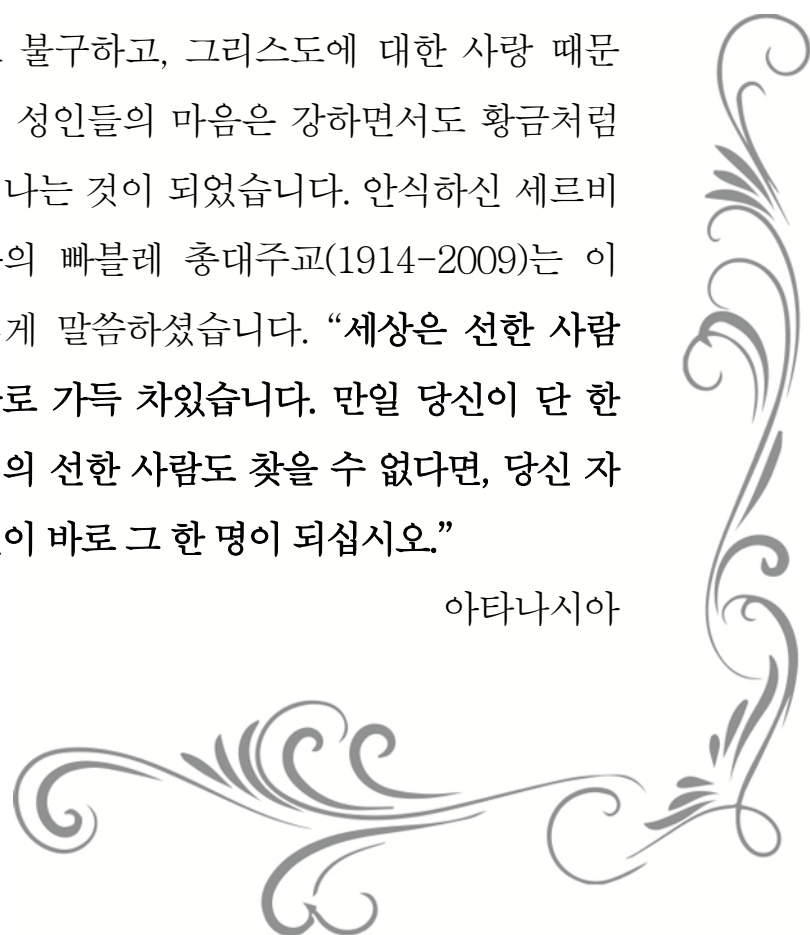
제가 언제나 좋아하는 글 가운데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았던 작은 유대인 소녀의 것입니다. 그녀와 가족은 히틀러의 나치에게 붙잡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공장 사무실에 있는 창고에 숨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 안네 프랑크(1929-1945)는 두 해가 넘는 기간 동안 작고 비좁은 공간 안에 숨어 지내며, 자신의 내밀한 생각과 두려움, 기쁨, 희망 등을 세밀하게 적은 일기를 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체포되어 죽고 난 뒤, 나중에 발견된 일기장에는 가장 강력하고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글귀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참으로 선하다고 믿는다.”

그토록 어린 소녀가 한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배어있습니다. 곧, 친절함, 인간성에 대한 경의, 하느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 등...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두 사람(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지나쳤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회의 성인들도 이처럼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경험한 온갖 악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인들의 마음은 강하면서도 황금처럼 빛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하신 세르비아의 빠블레 총대주교(1914-2009)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단 한 명의 선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한 명이 되십시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십자가 경배주일

오늘 주일은 십자가 경배주일입니다. 대사순절로 향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일로, 금식과 예배와 기도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대사순절의 나머지 기간을 영적 투쟁을 잘 해나가서 주님의 스스로 자발적인 수난과 십자가에 달리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십자가의 축복으로 대사순절을 잘 보내고 성대주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온라인 성서공부 재개

잠시 멈추었던 온라인 성서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베드로 1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 사도 바울로의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공부할 것입니다. 매 주 월요일 한국정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성서공부를 통해 유익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대사순절 기간 예배 유튜브 생중계

대사순절 주간 예배 중에, 화, 목요일 오후 5

시 석후대과, 수요일 오후 5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금요일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을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모회보 성당

■ 성모회보 축일 성찬예배

지난 3월 28일 주일에 성모회보 성당 축일(25일)을 맞이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박인곤 보제가 성당을 방문하여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와 함께 조과에 이어 성찬예배를 집전하였고, 사순절 제 2주일 축일로 기념하는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께서 이 날 복음말씀인 중풍병자를 치유한 주님의 기적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설교말씀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간예식



■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4월 7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4월 9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찬양(제4스타시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